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대림절, 성탄 점등 예배

2024년 12월 1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됩니다.

3. 복녃 성도와 함께 드리는 성탄예배

오는(12.17) 오후 7시 서울 충현교회에서 있습니다(교회 출발 - 5:30).

4. 목요 구역예배

금주 목요 구역예배는 김혜숙 권사 가정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5. 어린이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6.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강민지 학생 : 중국 친척 방문 : 12/7(토) ~ 2/1(토), 약 2달 일정
박수진 학생 : 중국 여정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7. 교육관·사택 - 장판 작업

수성교회 한기만 장로님께서 교육관, 식당, 사택 장판과 시트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소개해주신 정애자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8. 1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11.1~12.1).

12/14일(토)-오동영 집사(-11.14) 12/27(금)-이은서 어린이
12/29일(일)-한성결 학생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12/01	대림절 1주 / 성탄 점등 예배 찾달맞이 일석예배 (성탄예식)
12/03	저희교회교육원 세미나 다음세대 신년목회를 위한 제안
12/08	대림절 2주 / 성서주일
12/12	경사지방 무회자 부부 기도회
12/15	대림절 3주 / 사무총회 공교(1)
12/17	복녃 성도와 함께하는 성탄예배
12/22	대림절 4주 / 사무총회 공교(2)
12/25	성탄절 감사예배 (세례/성찬)
12/29	송관사주일 / 제17차 사무총회
12/31	송구영신예배 (밤 11:30-12:30)
01/01	산년맞이 감사예배
01/05	2025 신년 감사 주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각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곡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12/08 정애자 권사
- 12/15 김혜숙 권사
- 12/22 박재연 집사
- 12/25 이광근 안집사
- 12/29 임명자 집사
- 12/30 이광근 안집사
- 2025 1/5 임명숙 집사



주사랑 7권 49호 | 2024년 12월 9일
창립 2017.11.25 |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대림절 두 번째 주일 / 평화의 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33)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 / 성서주일** 인도: 집례자

- ※ 목 도 살전 5:23 인 도 자
- ※ 찬 송 가 찬 335장 다 같 이
(크고 놀라운 평화가)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서교육 No.116 구주강림(2)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410장 다 같 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 대표기도 정애자 권사
(이전도장/중과도장)
- 성경봉독 이사야 9:6~7 (구약 978) 정애자 권사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그 날을 기다리라 한승훈 목사
- 봉헌찬송 찬 180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우 학생)
-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연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연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 일 조 : 김혜숙 / 임명순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제효 박제연 이광근 오동영 임명순 현수현진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하락
- 감사헌금 : 김혜숙 이광근 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 월삭감사 : 이광근 박제연 한성결 한은총 한하락 한승훈 임명순
- 구역헌금 : 김혜숙 임명순
- 선교헌금 : 임명자
- 차량헌금 : 나승원 정영미
- 후원헌금 : 방애경 윤상봉 정지운 경기서지병원 독지교회 조은교회
- 도배장판 : 한기민(수성교회) **농협(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의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아모스 4:4-13 (구 1277)**
말씀제목 **하나님 만기를 준비하라**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빌립보서 1:3-11 (신 318)**
말씀제목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성도**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임명자 집사** 임명순 사모
성경봉독 **왕상 16:15-34 (구 542)**
대표기도 정애자 권사
말씀제목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3:1-6 (신 91)**
말씀제목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8월 일 암 4:4-13 **하나님 만기를 준비하라**
9월 월 암 5:1-17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살라**
10월 화 암 5:18-27 **그릇된 신학, 잘못된 신앙**
11월 수 암 6:1-14 **나의 거울을 닦아보라**
12월 목 암 7:1-9 **침된 회개를 위하여**
13월 금 암 7:10-17 **아바사의 시대에 아모스**
14월 토 암 8:1-14 **뿌리대로 거둔다**
15월 일 암 9:1-15 **무진 다윗의 정말을 재건**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산헌총성교회)  정성 목사(예배) 선헌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후흥스쿨)  이재우 집사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페도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캄피션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아진은 선교사 안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안터림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성 총회 향훈  북한선교장재수립 북한선교교회개척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	---	--	---	--

- ⑥ **이사야는 앗수르를 진멸하실 하나님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나요?**(사 14:26~27)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 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폐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 ⑦ **아하스 왕이 죽던 해의 나라의 지도자의 영적 상태를 뱀에 비유로 가리키고 있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과 해방을 상징하는 것은?**(사 14:29)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 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 ⑧ **이스라엘의 주변국 중에서 형제 국가로 애가(愛假)의 형식으로 이 나라의 멸망을 슬피 하지만 극심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결정을 유보할 수 없었던 곳은?**(사 15:1)
() 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일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 ⑨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위해 모압을 멸절하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요?**(사 16:5~6)
다윗의 장막에 () 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 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 을 들었나니 심히 () 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 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 ⑩ **앗수르에 의해 멸망할 국가에 대한 경고로 수리아와 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곳은 어디 안가요?**(사 17:1~3)
() 에 관한 경고라 보라 () 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놓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 의 요새와 () 나라와 () 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⑪ **북이스라엘(에브라임, 사마리아)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사 17:8~10)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 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 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네 구원의 () 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 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①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인가요?**(사 11:1~5)

()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와 ()의 영이요 ()과 ()의 영이요 ()과 여호와를 ()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아니하며 ()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②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사 11:9~10)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도 없고 ()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③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그날에 백성들의 반응은?**(사 12:1~3)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이시라 내가 ()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라

④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는?**(사 13:11~12)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를 벌하며 ()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꾸짖으시며 지칭하신 별칭과 결말은?**(사 14:12~15)

너 아침의 아들 ()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50절)

윌리엄 슈미츠(William B. Schmidt)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옐파소라는 산의 터널을 혼자 삽으로 파낸 광부입니다. 당시 길이 제대로 닦여있지 않은 1920년대라 많은 광부들이 광물을 캔 뒤 험준한 산을 넘어 옮겨야 했습니다.

윌리엄은 광부들이 더 쉽게 광물을 옮기도록 혼자서 터널을 팠습니다. 수십 명이 달려들어 불가능해 보였지만 윌리엄은 혼자서 매일 삽을 들었습니다. 폭 3m, 길이 800m의 터널을 파는 대만 무려 38년이 걸렸습니다. 윌리엄이 터널을 뚫는 동안 기술이 발전해 도로가 풀리고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터널을 팔 이유가 없었지만,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일 터널을 파내려갔습니다.

마침내 터널이 완공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윌리엄이 터널을 판 이유가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윌리엄이 판 터널 곳곳에는 엄청난 금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38년간 터널을 파낸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금을 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혼자서 미련한 척 평생을 연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때로는 평생을 바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석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보화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찾으십시오. 반드시 형통의 복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931	남조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찬송가 찬 575장	다 같이	913	남조 르호보암의 죽음	왕상 14장
대표기도	한승훈 목사	913	남조 아비얌의 등극	왕상 15장
성경봉독 왕상 16:15~34	말은이	911	남조 아시의 등극 (~870)	왕상 15장
말씀인도 쿠키지도를 9월 1회 포함	임명순 사모	910	남조 아비얌의 죽음	왕상 15장
합심기도	다 같이	910	북조 나답의 등극	왕상 15:25-31
헌금기도 찬 585장	말은이	908	북조 바이사의 반란 (~885)	왕상 15장
주기도문	다 같이	884	북조 엘라의 등극 (~885)	왕상 16장

■ 들어가는 말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는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 통치 3년 되는 해에 디르사에서 왕위에 올랐고,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디르사는 벤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해발고도가 적당하고, 마르지 않는 수원(물줄기)이 있으며, 교역로가 발달하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이사 왕은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이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단과 벰엘의 금송아지'를 숭배하였고, 백성에게도 그것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바이사 왕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진멸한 일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손으로 죽인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 통치 26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바이사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2년 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 41년을 평탄하게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이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모두 일곱 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반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권이 자주 바뀌고 평화가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이사 왕과 엘라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 연어야할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1~4).

바이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바이사를 꾸짖으십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사를 '타끌'에서 들어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타끌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먼지', '흙'을 말하며 가장 비천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바이사가 왕이 될 자격이나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였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의 직분'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바이사였는데, 이번엔 바이사를 직접 심판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심판을 집행했던 바이사는 그의 아들 때에 똑같은 심판을 받아 진멸되고 맙니다. 그 집 남자들의 시신을 성읍에서는 개가, 들에서는 새가 먹을 만큼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사를 진토에서 왕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지만, 바이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교만을 이유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가문을 진토에 묻히지 못할 만큼 비참한 자리로 떨어뜨리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내리셨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 2:30). 하나님의 지도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둘째, 탐심과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5~8).

'타끌에서 너를 들었다'고 할 만큼 미천한 출신이었던 바이사 왕은 나답 왕 가문의 죄악을 대항하여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왕과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도 나답 왕의 악한 길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신분의 사람을 왕으로 끌어올리신 이유는 '겸손'함을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탐심과 정욕을 따라 쾌락과 번영을 부추기는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권력을 맘껏 누리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좋았고, 백성들도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버릴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죄와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속에 동일한 죄가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6:42).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아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둔한 행동입니다.

셋째, 불의하고 악한 전통과 구습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9~13).

바이사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에게 내려졌던 심판의 경고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라 왕은 아버지의 악한 길을 고수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주흥과 쾌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결국 엘라 왕은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다가 왕위에 오른 지 고작 2년 만에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 희생당하고 맙니다. 그는 단 2년 간의 왕권에 취해 살다가, 영원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성경이 그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마저 생략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엡 4:22~24). 변화하지 못하면 썩게 되고, 썩으면 도려내지는 법입니다.

■ 결론

오늘 본문의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타락을 백성들이 방관했고, 왕이 그러니 백성도 따라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불순종과 타락의 영향력은 그들 자신의 몰락과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 공동체 전체가 죄의 연대와 공동체적 파편의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봅니다.